



경복궁보다 2년 앞서 전깃불
국제전화선·기상관측소...

근대역사 최초 간직한 섬

국내에서는 한 통신사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으로 거문도등대를 촬영했다. 높은 것이 2006년 신축된 33m짜리 현대식 등대, 낮은 것이 1905년 첫 점등된 옛 것이다. 등대 앞의 바위가 배치바깥, 정자가 관백정이다.

**‘블루오션’
다도해 <24>**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여수편 - 거문도 II

**영국, 1885년 해군기지 건설·의료기술 등 전파
‘학식있는 문인들이 많다’ 거문도라 불려지기 시작**

**제주서 먹던 자리돔물회, 이젠 거문도 수출품
‘숙박 등대체험’ 여수해양수산청 2주전 예약**

10일 오전 10시 10분 거문도에 도착한 취재진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정해진 체류 시간을 감안해 서둘러 거문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6시간 남짓한 시간에 면적 12㎢에 동도와 서도, 고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된 거문도 ‘8경’을 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고도에서 삼호교를 지나 서도로 넘어갔다. 셋 중 말형과 같은 서도는 최북단에 녹산등대와 거문도인어해양공원, 최남단에 거문도등대와 관백정이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 방향을 튼 뒤 유림해수욕장을 지나 크고 작은 바위로 이어진 ‘목넘어’를 통해 잠시 곱푸른 바다를 구경했다. 태풍이 오면 파도가 바위를 넘나든다고 해서 붙여진 ‘목넘어’를 지나면 동백나무로 우거진 숲길이 나온다. 이렇게 30여분 걸으니 33m 높이의 하얀색 등대가 눈에 들어왔다.

사실 높은 등대는 지난 2006년 신축된 것으로, 그 옆에 6.4m 높이의 등대가 있다. 이것이 1905년 4월 12일 첫 점등된, 인천 팔미도 등대(1903년 6월 1일)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등대다. 프랑스제 프리즘렌즈는 신축 등대로 옮겨져 111년째 15초 간격으로 바다를 비추고 있다. 그 바로 앞이 남해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관백정이 서 있고, 그 뒤에는 우리나라 23개의 영해기점 중 하

나인 ‘배치바깥’이 있다. 잠시 숨을 고르고 25km 거리의 백도와 여서도, 청산도를 비롯해 눈앞에 펼쳐진 신의 선물을 구경하느라 낮을 놓았다. 이곳을 찾은 이라면 몇몇 장애물을 제외하고 1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경치에 비슷한 감탄사를 쏟아냈을 것이다.

“옛 노래들 출렁출렁 파도는 삼산을 울리고”로 시작되는 거문도 등대비(작사 김진형 작곡 황선우)를 애써 읽어내려간 뒤 취재진은 ‘드론’으로 거문도등대섬 전체를 앵글에 담아보기로 했다.

장비를 꺼내 시험 운영을 막 시작하자 30대로 보이는 한 사나이가 헬레벌떡 뛰어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시과 이경범 주무관(39·9급). 이것저것을 묻던 그는 “한 통신업체에서 최근 처음으로 드론을 가져왔는데 기상이 좋지 않아 그림을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걱정해줬다. 거문도등대에는 모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영해를 지키는 이들의 소일거리는 ‘영상통화’, ‘위성TV’. 공직에 늦게 진입한 그는 최근 기상악화로 3주간 불에 나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주무관은 “거문도는 날씨가 따뜻하고 기상이 좋은 겨울에 와야 제맛”이라며 “최대 8명이 잘 수 있는 거문도등대 체험숙소가 있으니 꼭 찾

아달라”고 당부한 뒤 등대로 돌아갔다. 이 20평 짜리 숙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2주전 예약을 받고 있다. 80m 상공에서 거문도 등대섬을 촬영한 취재진은 곧 오던 길을 따라 고도의 한 식당에서 제주도에서만 먹는다는 자리돔물회로 점심을 해결했다. 수은 상승으로, 갈치·삼치 등 거문도 전통어종은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제주도 연안보다 자리돔이 더 많혀 제주도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 식당 ‘사장님’의 말이다. 서둘러 허기를 채우고 걸어서 거문도역사공원을 찾았다. 그 중간엔 일제강점기 건립된 거문도신사터, 거문도항수축기념비, 해저케이블육양지 등 다양한 근대역사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 거문도의 ‘가치’에 눈을 떴던 일제는 1904년 일본 본토와 거문도, 다시 중국의 대련을 잇는 해방케이블, 1905년 거문도등대를 각각 설치하고 1938년에는 고도 앞바다 4020m를 매립해 방파제 240m를 매축하는 등 다듬어나갔다. 하지만 그 주체가 일제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지돼 있는 이들 자원처럼 거문도의 가치는 재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어의 거문도 토속어이자 남해왕릉의 아들을 지칭하는 고두리영감의 제단(祭壇)이 있는 안노루섬과 뱀노루섬을 멀리서 살펴보면 오르막길

을 걷다보니 거문도역사공원에 닿았다.

3명의 영국인 해군의 묘지를 공공근로중인 인근 덕촌마을 할머니들이 다듬고 있었다. 거문도 토박이인 이들 할머니는 “최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농사보다는 이 일이 더 낫다”고 말했다. 조성된 지 100년도 넘는 영국인들의 묘지가 거문도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은 복잡한 아시아 정세 속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1885년부터 2년간 거문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했다. 조선의 가혹한 세금과 부역, 그리고 지독한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거문도 주민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 서양의 의료기술과 식료품을 건네는 영국 해군과 매우 친밀했다고 한다. 영국은 해군기지 건설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일당으로 6펜스를 주기도 했다. 영국 해군은 묘지 외에도 거문도에 여러가지를 남겼다.

먼저 삼도, 삼산도, 거마도로 불렸던 이 섬이 거문도로 불리게 된 것은 1885년 이후의 일이다. 영국의 불법점거를 항의하기 위해 찾은 조선 유사당상 엄세영, 중국 수군제독 정여창, 독일 자문관 뮐렌도르프가 이 섬을 찾았는데, 정여창이 필담을 하다가 학식 있는 문인들이 많은 것에 놀라 ‘큰 문인들이 사는 섬’이라고 부르면서 거문도가 됐다. 경복궁(1887년)보다 2년 앞서 전깃불을 켜고, 테니스장, 당구장 등 유희시설도 들어섰다. 비슷한 시점에 기상관측소가 건립됐고, 국제전화선도 개통됐다. 근대역사에서 다양한 ‘최초’의 기록을 가진 거문도다.

아쉽지만 이 영국인 묘지를 둘러본 뒤 취재진은 오후 4시 30분 거문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 섬을 언제 다시 찾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섬 사람 신황현 거문도뱃노래 전수회원
“고향의 ‘옛 것’ 보존에
40~60대 동참 늘어야”**

그는 거문도를 40년이나 떠나 있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있던 꿈 많은 28살 청년은 부산의 한 상선회사에 취직했다. 무역선의 갑판장에서 선장으로 31년간 세계 곳곳을 누빈 그는 은퇴하고 나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떠날 당시 서도에만 304호에 달했던 가구수는 140호로 줄고, 텅텅빈 얼굴은 주름투성이로 바뀌었다.

뛰어난 아코디언 연주 실력으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다. 점차 잊혀져가는 고향의 ‘옛 것’에 대한 미안함과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거문도뱃노래전수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신황현(74)씨는 “40~60대가 꽤 있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전수회에 가입하지 않으려하는 것이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직접 가사를 모은 거문도뱃노래는 고사소리, 낚소리, 월내소리, 가래소리, 썰소리, 술비소리 등으로 나뉘는데, 1년에 2차례 정기시연회를 갖는다. 회원 30명 모두가 70대 이상이다.

한편 거문도 뱃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많은 울릉도에 오래된 배를 가지고 간 뒤 새 배를 만들어 되돌아올 정도로 진취적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 安 · 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식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